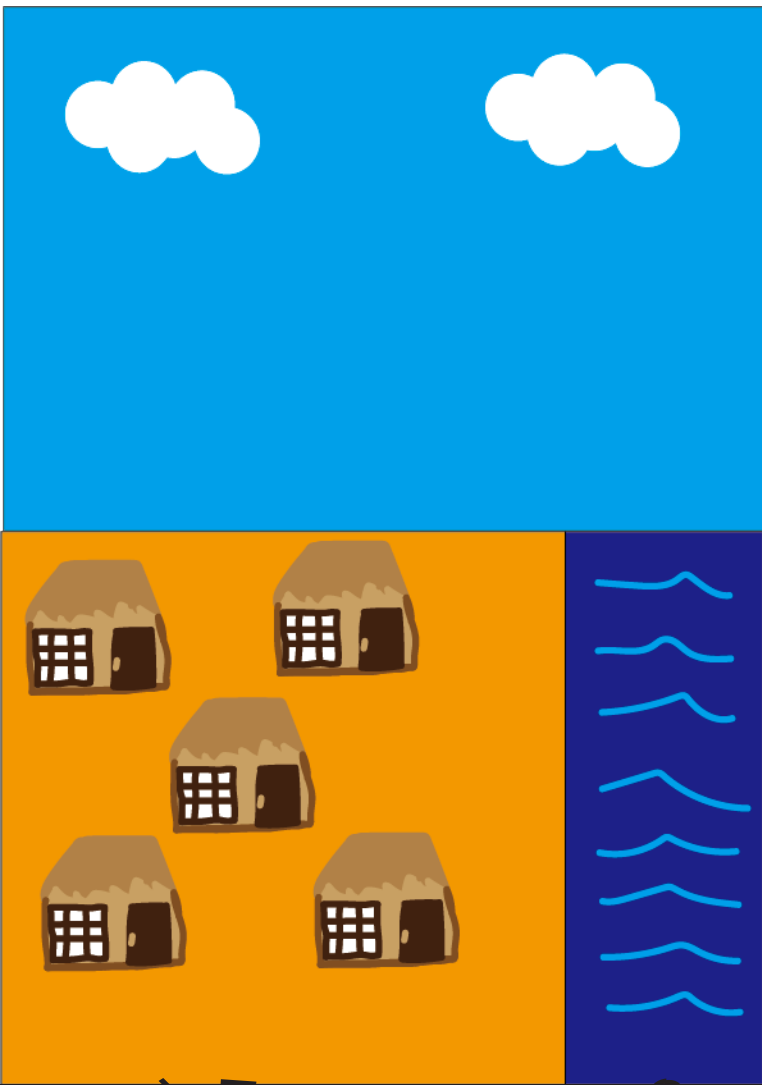


빨간 "백일홍" 에 얽힌  
슬픈 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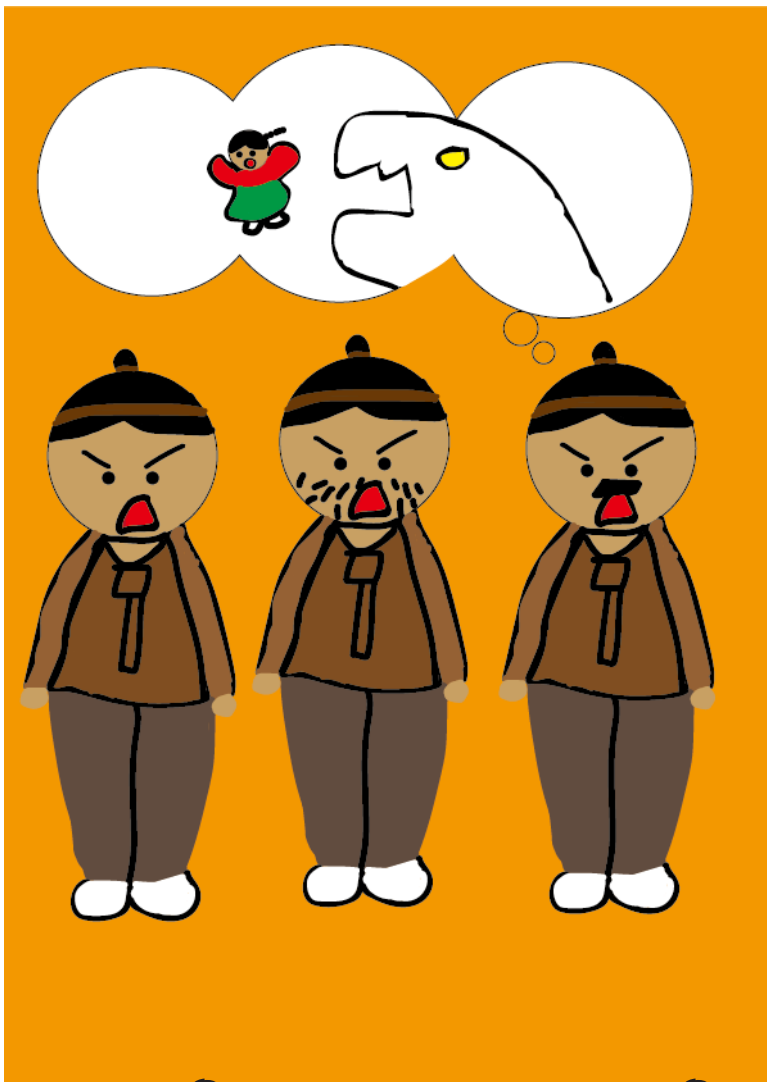
글, 그림 정한나



먼 옛날,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에 걱정  
거리가 생겼습니다.



커다랗고 무서운 이무기가  
나타난 거예요!  
"크아아아아아앙!"



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에게 마을 처녀를  
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어요.

"이무기에게 마을 처녀를 제물로  
바치는 수 밖에 없소!"



마을 처녀들이 제비를 뽑았고 제물로  
뽑힌 처녀가 눈물을 흘렸어요.  
"흑흑... 내가 뽑히게 되다니..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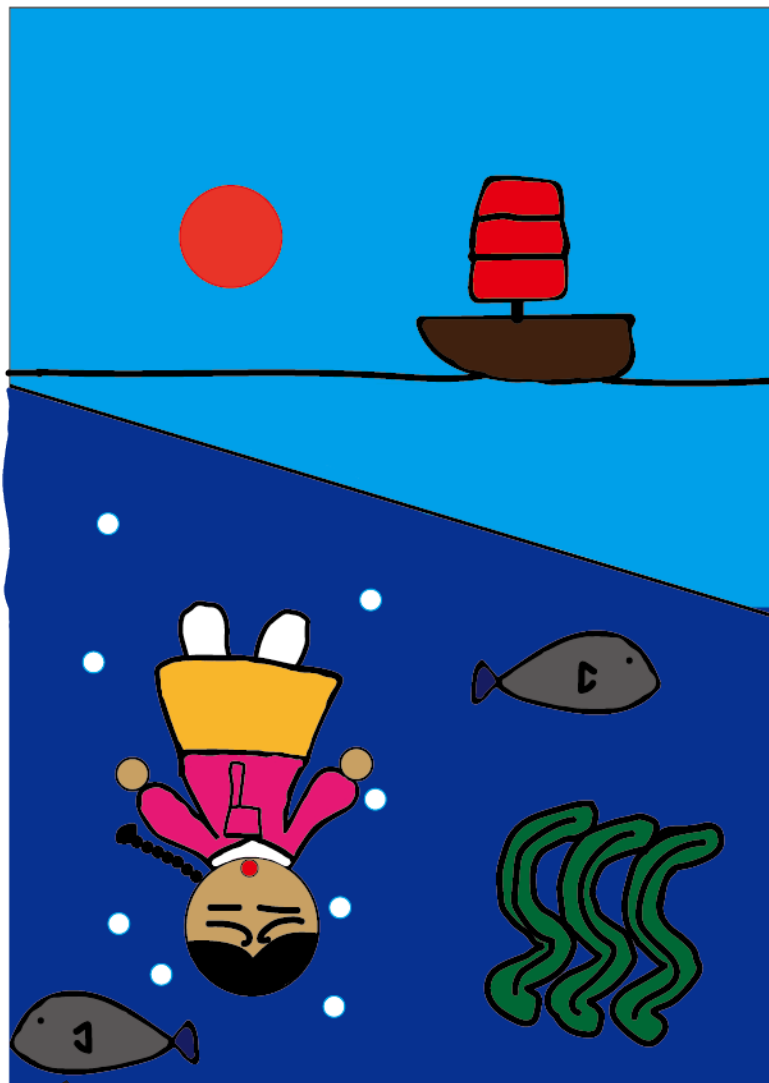


그때, 처녀의 연인인 청년이 나타나서  
이무기를 죽였어요.  
"그녀를 죽게 놔둘 수는 없다!"



하지만 더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나자,  
청년은 바다로 나가며 한가지 약속을  
했어요.

"100일 안에 돌아오겠소. 이무기를  
죽이면 하얀 돛, 죽이지 못한다면6  
붉은 돛을 달겠소."



그렇게 청년이 떠난 지 100일 되던 날,  
붉은 돛을 단 배를 본 처녀는 충격에  
빠져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,  
"흐흑... 당신이 없는 세상은.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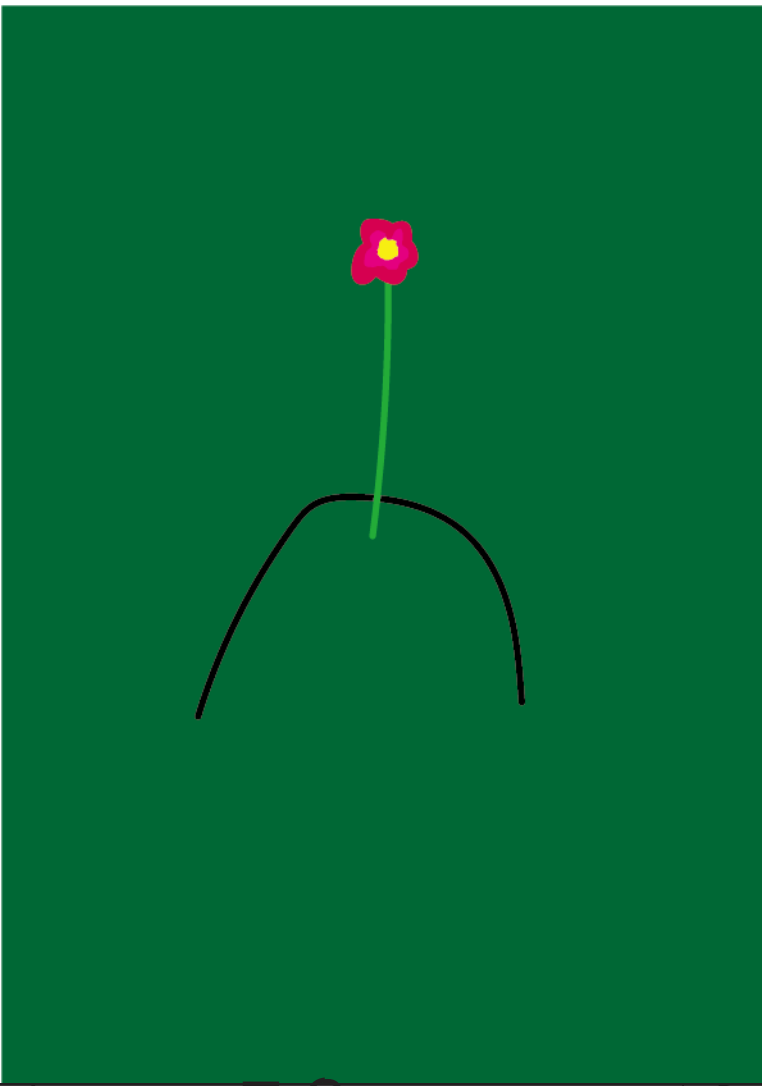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청년은 죽지 않았어요,  
이무기를 죽일 때 나온 피가 배의 돛을  
새빨강게 물들인 거예요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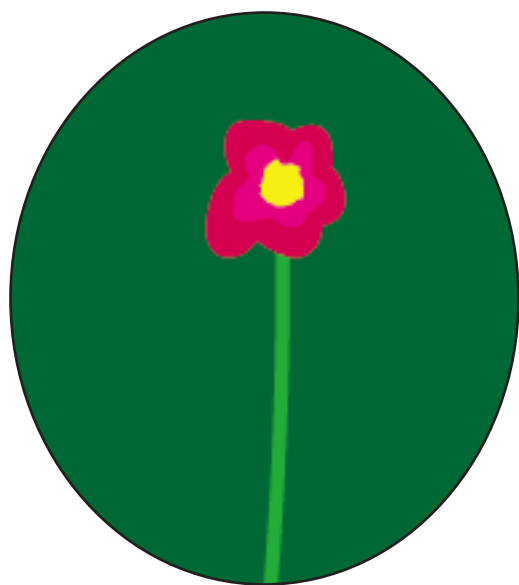


소식을 접한 청년은 처녀를 햇볕이  
잘 드는 곳에 묻어주고 눈물을  
흘렸어요.

"난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 
왜 당신은...!"



그 후, 처녀가 죽은 자리에서 100일 동안 피는 꽃이 피었고, 사람들은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습니다.



1 1